

치사

“然則大藏一也 先後雕鏤一也 君臣同願 赤一也”

“대장경도 한 가지이고, 전후로 대장경을 새긴 것도 한 가지이며,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발원한 것도 한 가지”라고 하였듯이,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 고려 현종2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장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문화적 자긍심이 강했던 고려가 동아시아의 정신 문화사를 이끌어 온 대장경의 조성을 통해 당시 고려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거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실의에 젖은 백성과 혼란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임금과 신하 모두가 합심하여 음력 2월 연등회를 기해 초조대장경 조성을 발원하였던 것입니다.

고려의 문신 이규보가 쓴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이러한 사실이 잘 담겨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난의 시기에 초조대장경 불사라는 대역사를 일구어 낸 위대한 민족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문화요. 유구한 불교의 역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량이 6,000축(軸)에 이르는 방대한 목판대장경을 판각하고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언어로 문자로 전해져 대장경으로 제작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전달, 전승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으로 쓰는 필사 방식에서 대량으로 찍어 낸 불경은 곧 찬란한 고려의 문화, 불교 사상을 이 땅에 오롯이 뿌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곳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 보관하던 초조대장경을 비롯하여 고려 교장이 1232년 몽고의 침략으로 모두 소실되는 참화를 겪게 되지만, 곧 이어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16년에 걸쳐 조성하는 저력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은 고려대장경 조성에 대해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해와 달과 함께 나란히 걸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고, 그 일은 천년의 지혜를 다시 후손들이 천년을 누릴 수 있는 자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자 그 시공(時空)의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리가 열리기까지 수많은 고려인, 고승대덕 그리고 이름 모를 불자와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 당연합니다만,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찾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대작 불사를 묵묵히 손수 일구어 온 종림스님과 복원작업에 노력한 교수와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초조

대장경 천년의 해를 뜻 깊게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양의 금속활자보다 앞서 인쇄 매체의 혁신을 고려대장경으로부터 바꾸어 놓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간 사라졌다고만 여겨왔던 초조대장경의 새로운 복원불사가 지식 문화사를 아우르는 문화의 르레상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동화사에서 초조대장경 봉정식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대장경을 모두 보유하게 된 우리 종단과 불자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대장경을 통해 한국이 문화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불사에 같이 협력해 준 국내외 소장기관과 동화사, 부인사와 더불어 연구 작업에 참여해 준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기2555년 3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 추신 : 행사 팸플릿 제작 기간 등이 있어 가능하면 3/14일까지는 문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